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의 口訣*

金星周**

要約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에 記入된 點吐가 日本의 訓點을 反映한 것인지 韓國의 口訣을 反映한 것인지는 日本의 訓點 硏究者와 韓國의 口訣 硏究者 사이의 焦眉의 關心事이다. 最近의 Whitman(2009)는 이 점에 대해서 論議한 代表的인 論文이다. 이 글은 佐藤本『華嚴文義要決』에 反映된 點吐의 成格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全體 例文을 對象으로 綿密한 考察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보고, 小林芳規(2002)와 김영욱(2003)을 바탕으로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에 記入된 口訣의 機能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 作業에서 旣存의 論議에서 提示한 點圖가 대부분 妥當한 것이기는 하나 細部的으로는 아래와 같이 修正해야 할 점들을 發見할 수 있었다. 첫째 11(·)은 名詞句 接續의 機能 이외에 連結語尾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둘째 21(·)과 31(·)은 旣存의 論議와는 달리 'ㄴ'이나 'ㅅ'로 解釋되는 경우가 없고 兩者는 모두 連結 機能을 가진다. 31(·)을 따로 設定할 根據도 貧弱하기 때문에 旣存의 點圖에서 두 개의 點吐로 提示되었으나 이들을 합쳐서 21~31(·)으로 把握하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과제명: 古代韓日 兩國의 漢字·漢文 讀法과 自國的 受用 樣相에 대한 硏究, 과제번호: KRF-2008-322-A00057), 2009년 2월 10일~1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구결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기술교육대학 연구교수

고 하나의 點吐로 볼 可能性을 提示하였다.

*핵심어: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 訓點, 口訣, ヲコト点, 點吐, 11(·), 21~31(·), 23(·)

1.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以下 佐藤本『要決』)에 대해서는 山田孝雄(1939), 築島裕(1963), 中田祝夫(1969/1979) 등 解題 性格의 論議 以外에도 小林芳規(2002), 김영욱(2003/2006), 小林芳規(2004), 小林芳規(2006) 등의 本格的인 論議가 있었다. 이 論議들에서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口訣에 대해 提示된 點圖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ト		● ノ
● ヲ		● ハ
● テ		●ナリ

<그림1>小林芳規(2002)의 點圖

● ㇀	● 冫	● ㇁
● 乙		● 丁
● 𠂉		丨丨

<그림2>김영욱(2003)의 點圖

● ト	● ニ	● ノ
● ヲ		● ハ
● て		丨ナリ

<그림3>小林芳規(2006)의 點圖

佐藤本『要決』이 新羅의 口訣을 反映하는가, 日本의 訓點을 反映하는가의 問題는 韓國의 口訣 硏究者와 日本의 訓點 硏究者들 사이의 焦眉의 關心事이지만, 몇몇 例를 除外하면 이 文獻에 懸吐된 點吐는 거의 대부분이 韓國語로도 또 日本語로도 읽을 수 있다는 點이 佐藤本『要決』에 反映된 點吐의 本質을 把握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最近에 發表된 Whitman(2009)는 佐藤本『要決』에 反映된 點吐의 性格을 밝히려는 試圖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佐藤本『要決』에 기입된 點

吐와 符號들이 日本의 訓點인가, 아니면 韓國의 口訣인가, 아니면 兩者가 複合的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論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文獻에 記入된 點吐와 符號들에 대한 性格을 明確하게 밝히는 作業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1][2]

小林芳規(2002, 2004, 2006)은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모든 口訣을 對象으로 論議한 것은 아니다. 김영욱(2003/2006)이 比較的 忠實하게 佐藤本『要決』의 點吐를 檢討하고 點圖를 提示하였으나 提示된 點圖에는 몇 가지 再考해야 될 部分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現在 進行 中인『華嚴文義要決』國語學的 譯註팀에서 論議되고 있는 講讀 作業 內容을 바탕으로 佐藤本『要決』에 懸吐된 口訣의 모든 例를 對象으로 該當 點吐의 機能을 살피는 데 目的을 두었다.

2. 口訣

小林芳規(2002, 2004, 2006), 김영욱(2003/2006)에 의하면 佐藤本『要決』에는 11(・), 21(・), 31(・), 12(・), 13(・), 23(・), 33(ㅣ) 등 모두 7

1)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의 點吐가 新羅時代의 韓國語를 反映하는 것인지 아니면 平安時代의 日本語를 反映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狀況이다. 따라서 日本의 訓點과 韓國의 口訣을 同等하게 다루는 中立的인 觀點에서 論議가 進行되어야 하지만 筆者 自身이 이러한 論議를 圓滑히 修行할 수 있을 만큼 日本 訓點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歪曲될 所持를 안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佐藤本『要決』에 懸吐된 點吐에 대해서 口訣의 觀點에서 論議를 진행한다. 日本語의 訓點에 관해서도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點吐와 符號가 충분히 檢討되기를 바란다.

2) 論議가 散漫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符號에 대해서는 別考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이 文獻에 記入된 口訣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符號에 대해서는 金星周(인쇄중)을 참조할 것.

개의 點吐가 쓰인 것으로 논의되었다.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點吐에 대한 機能을 밝히기 전에 먼저 이 文獻에 記入된 點吐들의 性格을 잠시 言及하기로 한다.[3)]

(1) 가. 問若爾何故菩提流支云前之五會[23(·)]是佛成道初七日說[33(ㅣ)]第六會[23(·)]後是第二七日說[33(ㅣ)]耶 〈149-151〉

나.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菩提流支는 "앞의 다섯 會는 부처님 成道 후 처음 7일이고, 第6會 이후는 2·7일이다"라고 말하는가?

(1가)에서 밑줄친 23(·)이 '第六會' 다음에 懸吐되어 있으나 (1나)와 같이 '第6會 以後는'으로 解釋되어야 하므로 '第六會後' 다음에 懸吐되어야 한다. 즉 (1가)의 懸吐된 두 개의 23(·) 중에서 後行하는 23(·)은 懸吐된 位置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가. 答舍[33(·),주서]是 〈306〉

나. 答한다. 집이 그것이다.

(2가)에서도 33(·)이 '舍' 다음에 懸吐된 것은 明確한 잘못이다. (2가)는 '何者是總相(무엇이 總相인가?)'이란 물음에 대한 對答인데, '總相'을 '집'으로 比喩하려는 答辯을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답한다. 집이다'로 解釋되어야 한다. 따라서 33(·)은 당연히 '是' 다음에 懸吐되어야

3) 이 글에서 쓰인 예문은 '화엄문의요결 국어학적 역주 작업'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이다. 모든 예문에서 (가)는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의 原文을 小林芳規(2002, 2004, 2006), 김영욱(2003/2006)에서 論議된 點圖를 따라 忠實하게 記述한 것이고, (나)는 이것의 現代譯이다.

한다.[4)5)]

(1)과 (2)에서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點吐가 잘못 懸吐된 部分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서 旣存의 論議에서 提起된 點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檢討하는 作業을 하도록 한다.[6)]

2.1. [11(·)]

11(·)의 例는 모두 8개가 있다.

(3) 가. 問惠苑云說此經者或仏自說或菩薩說或仏菩薩明光[전도부]中說或神[11(·)]天[11(·)]等種種類、說何故今此唯稱仏耶 〈272-274〉

나. 묻는다. 惠苑이 이르기를, 이 經을 說하는 이는, 혹은 부처가 스스로 說하였고, 혹은 菩薩이 說하였고, 혹은 佛菩薩의 光明 가운데서

---

4) 물론 '舍'에 句切線이 표시된 것도 잘못이다. 句切線에 대해서는 김성주(인쇄중) 참조.

5) 이 글을 審査한 審査委員 중 한 분은 이 글에서 佐藤本『要決』에 記入된 口訣이 精巧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言及한 部分들이 "대부분 懸吐者가 原文의 解釋을 (投稿者가 따르는) 一般的인 解釋과 달리 한 結果이지 懸吐者가 點吐나 符號를 잘못 사용한 結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言及하였다. 그리고 그 예 중에 하나로 (2가)의 33(·)과 句切線에 대해서도 懸吐者가 '舍'에서 文章이 終結되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懸吐한 것으로 把握하였다. 審査委員의 指摘대로 懸吐者의 意圖를 좀더 客觀的으로 把握하는 努力은 繼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는 (2가)는 分明히 懸吐가 잘못된 部分이라고 생각된다. '是' 다음에는 '問 此但椽等諸緣 何者是舍耶'이고, 이 部分은 質問과 그에 대한 答辯이 繼續해서 나오는 部分이어서 佐藤本『要決』의 懸吐者가 '是'와 '問'을 하나의 句節로 把握했을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6) 이런 점을 고려하면 鄭在永(2009: 11)의 지적과 같이 佐藤本『要決』의 口訣이 懸吐者가 직접 懸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記入한 吐를 그대로 베꼈거나 스승이 口述해 주는 內容을 받아 적었을 可能性이 있다.

說하였고, 혹은 神이니 天이니 하는 등의 갖가지 部類가 說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여기서는 오직 부처라고만 稱하는가?

(4) 가. 成[11(·)]壞[11(·)]二相顯此緣起離邊道理 〈378-379〉

나. 成相이니 壞相이니 하는 二相은 이 緣起가 極端을 떠난 道理임을 나타낸다.

(3가)의 '神[11(·)]'과 '天[11(·)]', (4가)의 '成[11(·)]'과 '壞[11(·)]'은 각각 '神이니 天이니'와 '成이니 壞이니'로 解釋되므로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의 例를 考慮하면 'ㅗ/ㅈ'에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의 11(·)〈ㅗ/ㅈ〉의 例이다.[7]

(5) 가. 長養无量[33(·)]種種善根[41(·),13(··)]㉠分別境界[25(·)]善根[11(·)]㉡具足善根[11(·)]㉢淸淨善根[11(·)]㉣一向善根[11(·)]㉤脩習善根[11(·)]㉥行善根[11(·)]㉦思惟善根[11(·)]㉧平等廣說善根[11(·),=55(/)] 〈진본화엄20, 01:11-14〉

나. 量 无ㄱ 種種 善根乙 長養xㅁ 分別 境界ㄴ 善根ㅗ 具足 善根ㅗ 淸淨 善根ㅗ 一向 善根ㅗ 脩習 善根ㅗ 行 善根ㅗ 思惟 善根ㅗ 平等 廣說 善根ㅗ(ㅅㅎ乙)xㅣ

다. 한량없는 種種의 善根을 長養하되, ㉠分別 境界의 善根이니 ㉡具足 善根이니 ㉢淸淨 善根이니 ㉣一向 善根이니 ㉤脩習 善根이니 ㉥行 善根이니 ㉦思惟 善根이니 ㉧平等 廣說 善根이니 하는 것을 한다.

---

7) 이 글에 提示된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의 例는 李丞宰 外(2006가, 2006나, 2009가, 2009나)를 바탕으로 약간의 손질을 한 것이다. 提示된 例文에서 (가)는 本文의 點吐를 忠實하게 反映한 것이고, (나)는 點吐를 字吐釋讀口訣로 옮긴 것이며, (다)는 現代譯이다.

(6) 가. 捨離㉠愚癡11(·)]及[25(·)?]以[34(ㅣ)]㉡疑惑[11(·),41(:),52(·)] 〈주본화엄34, 06:02〉

나. 愚癡ㅅ 及ㄷ 以ㅋ 疑惑ㅅㅅ乙 捨離ㅿ가

다. 愚癡이니 疑惑이니 하는 것을 捨離하며

(5가)는 晋本『華嚴經』卷第20의 例이고, (6가)는 周本『華嚴經』卷第34의 例인데, 佐藤本『要決』의 11(·)과 點吐釋讀口訣의 11(·)은 그 機能이 類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에는 名詞句 接續의 機能을 가지는 點吐로 11(·)〈ㅗ/ㅅ〉 以外에도 32(-)〈ㅅ〉도 있다.

(7) 가. 具足菩薩[44(·)]福[32(-)]智[32(-),25(·)]助道[41(·),43(-)]普[24(ㅣ)]益衆生[41(·),13(-)]而[45(·)]恒[24(ㅣ)?]不匱[32(·),35(·)?,22(ㅣ)?,51(.·)] 〈주본화엄34, 01:11-12〉

나. 菩薩ㅣ 福ㅅ 智ㅅㄷ 助道乙 具足(ㅅ)ㅎ下 普ㅣ 衆生乙 益xㅁ 而… 恒ㅣ 匱(ㅅ)ㅁㄱ 不矣Xx가

다. 菩薩의 福과 智의 助道를 具足하시어 널리 衆生을 利益되게 하되 항상 다할 수 없으며

(8) 가. 觀生死[32(-)]涅槃[32(-),41(·),45(:)]故 〈주본화엄36, 02:03〉

나. 生死ㅅ 涅槃ㅅ乙 觀(ㅅ)ㄱㅅ…{故}(ㅣ가)

다. 生死와 涅槃을 觀하는 까닭이며,

(9) 가. ㉠勝法[32(-)] Ⓐ微妙音[11(·)]Ⓑ譬諭[11(·)]Ⓒ字[11(·),13(/),㉡32(-)]相應[14(\)≠14(\·),54(\),구분선] 〈주본화엄34, 08:19〉

나. ㉠勝法ㅅ Ⓐ微妙音ㅅ Ⓑ譬諭ㅅ Ⓒ字ㅅ㉡ㅅㅅㅅ 相應xㅣx ㅣ

다. 勝法과 微妙音이니 비유니 문자이니 하는 것과 相應한다.

(7~9)에서 알 수 있듯이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에서 'ㅗ/ㅛ'와 'ㅅ'의 區分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김영욱(2003/2006)의 主張대로 佐藤本『要決』의 11(·)이 반드시 'ㅗ/ㅛ'로 解釋된다는 保障은 없다. 佐藤本『要決』의 11(·)을 'ㅅ'로 보아서 안 될 理由는 없기 때문이다. 佐藤本『要決』의 11(·)과 點吐釋讀口訣의 11(·)의 位置가 同一하다는 점을 考慮하여, 佐藤本『要決』의 11(·)을 'ㅗ/ㅛ'로 보는 것은 충분히 首肯할 수 있으나 佐藤本『要決』의 11(·)이 'ㅅ'일 可能性이나 또는 'ㅗ/ㅛ'와 'ㅅ'를 모두 表現하는 點吐일 可能性에 대해서도 열어 두어야 한다.

(10가)의 樣相은 좀 더 複雜하다.

(10) 가. 就此總中[주서_]開出諸色[주서_]所謂㉠苦色[11(·)][주서_]乃至㉡眞實[11(·)]緣起之㉢色[11(·)][주서_]如是无量差別之色[33(ㅣ)][주서_]是名為別[주서_] 〈401-402〉

나. 이 總 중에 나아가서 여러 色을 열어 내니 이른바 苦色과 내지 眞實과 緣起의 色, 이와 같은 無量한 差別의 色이다. 이를 일러 別이라 한다.

(10가)에는 '㉠苦色[11(·)]', '㉡眞實[11(·)]', '㉢色[11(·)]' 등 세 개의 11(·)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同一한 文法的 地位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苦色乃至眞實緣起之色'을 '[苦色]乃至[[[眞實][緣起]]之色]'의 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면, ㉠과 ㉢은 同一한 文法的 地位를 가지고 있고, ㉡은 이들보다 文章의 階層構造上 낮은 文法的 地位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 '眞實'은 ㉢의 '色'을 修飾하는 修飾語이기 때문이다.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의 例인 (9가)의 경우, '勝法微妙音譬諭字'는 그 구조를 '[勝法][[[微妙音][譬諭[字]]]'로 볼 수 있는데, 이는 '勝法'과 '微妙音譬諭字' 全體가 同一한 文法的 地位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把握할

수 있고, 後者는 다시 '微妙音', '譬諭', '字'로 分析되는 構造로 把握할 수 있다. 즉 (9가)는 (10가)와 類似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同一하지 않은 文法的 單位를 連結할 경우 하나의 점토 11(·)만을 使用하는 佐藤本『要決』과는 달리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은 '11[(·)]〈ㅗ/ㅣ〉'과 '32[(-)]〈ㅅ〉' 등 두 개의 서로 다른 口訣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佐藤本『要決』과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은 서로 다른 文法을 보여주는 것이다.[8]

아래의 (11가)를 보면 佐藤本『要決』의 11(·)을 名詞句 接續 機能의 'ㅗ/ㅣ' 또는 'ㅅ'로 볼 수는 없는 것 경우도 있다.

(11) 가. 答此並末敎機異宜[주서 ㄱ]聞各別[주서[ ]故致[11(·)]不同[주서_]本敎機定[주서_]故唯七二[주서_] 〈177-179〉

나. 답한다. 이것은 모두 枝末 敎法이어서 根機가 다르므로 각각 다르게 듣는 것이 마땅하니 같지 않음에 이르나 根本 敎法은 根機가 定해져 있으므로 오직 2·7日일 뿐이다.

다. 답한다. 이것은 모두 枝末 敎法이어서 根機가 다르므로 각각 다르게 듣는 것이 마땅하니 이르는 것이 같이 않으나 根本 敎法은 根機가 定해져 있으므로 오직 2·7日일 뿐이다.

(11가)의 '致[11(·)]'는 名詞句 接續 構成의 'ㅗ/ㅣ'나 'ㅅ'로는 解釋되기는 어렵고, (11나)와 같이 '致'를 動詞로 把握하든지 아니면 (11다)와 같이 主語로 把握할 수 있다. 즉 佐藤本『要決』의 11(·)은 連結語尾나

8) (1)과 (2)에서 살펴본 것처럼 ㉠苦色[11(·)], ㉡眞實[11(·)] ㉢色[11(·)] 가운데 하나 또는 두 개의 點吐는 잘못 懸吐된 것으로 볼 可能性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佐藤本『要決』의 點吐의 例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서도 正確한 判斷은 어렵다. 現在로서는 (10가)처럼 서도 다른 文法的 地位를 가진 名詞句를 同一한 點吐로 懸吐할 수 있는 것이 佐藤本『要決』의 文法이라고 把握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主語와 關聯된 機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佐藤本『要決』의 11(·)을 'ㅗ/ㅣ'로 想定할 경우 前者의 解釋은 可能하지만 後者의 解釋은 어렵다.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에서는 (12가)와 같이 'ㅗ/ㅣ'가 逆接의 連結語尾 機能을 가진다. (11가)의 '至[11(·)]'을 連結語尾와 關聯해서 解釋할 경우 接續 構成에 속하는 點吐가 動詞에 직접 懸吐된 것이 問題가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佐藤本『要決』에서는 點吐가 動詞에 직접 懸吐되는 (13가)와 같은 例가 있기 때문에 動詞에 직접 懸吐된 (11가)가 佐藤本『要決』의 文法으로서는 例外的인 것은 아니다.

(12) 가. 我[33(·)]今{12(:)}但[23(:)]略[23(₩)]說[13(·-),11(·)]眞實義[53(·),33(·)]無餘{12(:),24(ㅣ),54(₩),경계선} 〈주본화엄34, 08:18〉

나. 我ㄱ 今ㅅㄱ 但ㅅ 略ᄒᆞ 說X ㅣ 眞實義ㅓㄱ 餘ㅅㄱ 無ㅐX ㅣ

다. 나는 이제 단지 간략히 설명하지만 眞實義에는 남음 없이 하겠다.

(13) 가. 令[31(·)#21(·)~31(·)]其見聞[주서]方便引[21(·),3자합부]入[주서 ㄴ]无際限中[주서[ ]如[주서 ㄴ]觀牖隙[3자합부]見[주서 ㄴ]无際虛空[주서[ ] 〈189-190〉

나. 그 方便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한없는 가운데에 끌어 들이는 것은 마치 窓門의 조그만 틈을 보고서 끝없는 虛空을 보는 것과 같다.[9]

만약 (11가)의 '致11(·)'이 主語로 解釋된다면 佐藤本『要決』의

9) '그 方便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한없는 가운데에 끌어 들이는 것은'은 '그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方便으로 한없는 가운데에 끌어 들이는 것은'로 解釋할 可能性도 있다.

11(·)을 'ㅗ/ㅜ'로 볼 때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다. Whitman(2009: 7)는 이런 경우 日本 訓點에서는 '致サク', '致サマク', '致スコト'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을 築島裕(2007: 387-392)를 들어 제시하고 특히 '致スコト'라고 하는 경우에는 11(·)(그의 點圖로는 (·22))을 'ト'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佐藤本『要決』에 懸吐된 口訣을 日本 訓點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2.2. [21(·)]

佐藤本『要決』의 21(·)은 小林芳規(2002, 2004, 2006)에 의해서 'ヲ'로, 김영욱(2003/2006)에서 '乙'로 解釋되었다.

(14) 가. 舍那與證處[주서_]同遍法界設於東方證法來處[주서_]彼有[주서ㄱ]舍那[주서ㅣ]還[21(·)]有東方而來作證 〈124-126〉

나. 盧舍那佛과 證處가 함께 法界에 遍滿하여 東方에서 法을 證得하는 곳을 施設한다. 그곳에는 盧舍那佛이 있으며 여전히 東方이 있어 와서 證得한다.

結論부터 말하면 佐藤本『要決』의 21(·)을 '乙'로 보면 '還'의 解釋이 어렵다. 김영욱(2003/2006: 59-60)도 이런 點을 勘案하여 末音添記로 볼 수 있음을 操心스럽게 提起하였다. 小林芳規(2002)도 '還[21(·)]'을 '還を'로 보았으나 이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解釋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10]

'還[21(·)]'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筆者로서도 좋은 方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여기서 强調하고 싶은 것은 旣存의

10) Whitman(2009)에 의하면 이 '還[21(·)]'(그의 표기 방식으로 하면 '還(·42)')를 日本語로는 'コノカタヲ'로 읽는 것이 可能하다고 한다.

論議에서 21(·)으로 읽은 佐藤本『要決』의 例 모두가 對格助詞로 解釋되는 것은 不適切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15) 가. 答此卽是餘[21(·)]不[주서 ㄱ]待說餘[주서 ㄴ]又亦不导表初之說以不壞相故〈166-167〉

나. 答한다. 이것이 곧 나머지 時期이어서, 나머지 時期를 說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또한 처음의 說을 表하는 데에 障碍가 되지 않으니 그럼으로써 相을 허물지 않기 때문이다.

(16) 가. 令[31(·)]其見聞[주서 ㄴ]方便引[21(·),3자합부]入[주서 ㄱ]无際限中[주서 ㄴ]如[주서 ㄹ]觀牖隙[3자합부]見[주서 ㄱ]无際虛空[주서 ㄴ]〈189-190〉

나. 그 方便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끝없고 한없는 가운데에 끌어 들이는 것은 마치 조그만 틈을 보고서 끝없는 虛空을 보는 것과 같다.

(15가)의 '餘[21(·)]'과 (16가)의 '方便引[21(·),3자합부]'의 21(·)도 旣存의 論議에서와 같이 'ㄹ'로 볼 수는 없다. (15가)의 '餘[21(·)]'에 대해서 '나머지 時期이어서' 또는 이와 類似하게 敍述語로 解釋하여야 하며 目的語로 解釋할 수는 없다. (16가)의 '方便引[21(·)]'의 경우도 비록 '方便引'에 글자의 中央을 貫通하는 線이 있고, 또 21(·)이 懸吐되어 있지만, '令其見聞方便引入无際限中'은 '令其見聞方便'에서 句讀를 떼어야지 '令其見聞方便引 入无際限中'으로 句讀를 뗄 수는 없는 것 같다.[11] 또 (15가)에서 '方便引'을 貫通하는 線을 合符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12] 즉 '方便引'을 하나의 槪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게다가 여기

11) 실제로『卍續藏經』에는 後者와 같이 句讀點이 表示되어 있다.

12) 佐藤本『要決』에서 글자를 貫通하는 線들을 合符로 보기는 어렵다는 見解에 대해서는 金星周(인쇄중)을 參照할 것. 거기서는 佐藤本『要決』에서

에 目的格 助詞로 機能하는 21(·)이 懸吐되었다고 보는 것은 自然스러운 解釋이 아니다. '方便引'에 대한 김천학(1998)과 박상수(진행중)의 解釋은 각각 '그 보고 들은 자를 제한이 없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이니'와 '그 보고 듣는 자로 하여금 방편으로 제한이 없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니' 등이어서 분명히 이 글에서 提示한 (15나)이 解釋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方便引'을 하나의 槪念語로 본 것도 아니다.

以上과 같이 旣存의 論議에서 21(·)으로 把握된 세 例 모두가 대격 조사로 보기에는 不適切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1(·)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判斷하는 것은 어려운 問題이지만 現代譯을 考慮한다면, (15가)와 (16가)의 경우에는 連結語尾로 解釋하는 것이 自然스러운 것 같다.

2.3. [31(·)]

31(·)은 佐藤本『要決』에서 오직 한 例가 있다.

(17) 가. 令[31(·)#21~31(·)]其見聞[주서_]方便引[21(·),3자합부]入[주서 ㄷ]无際限中[주서[ ]如[주서 ㄷ]觀牖隙[3자합부]見[주서 ㄷ]无際虛空[주서[ ] 〈18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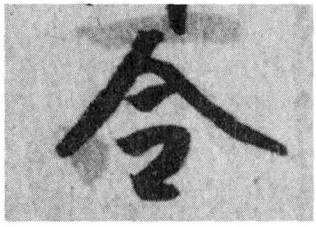
나. 그 方便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한없는 가운데에 끌어들이는 것은 마치 窓門의 조그만 틈을 보고서 끝없는 虛空을 보는 것과 같다.

佐藤本『要決』의 31(·)은 小林芳規(2002, 2004, 2006)과 김영욱(2003/2006)에서 각각 'テ'와 'ゟ'로 解釋되었다. 例가 하나밖에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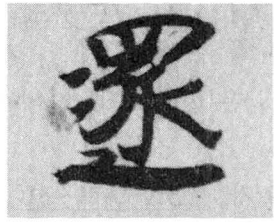
글자를 貫通하는 線에 대한 先入見을 없애기 위해서 合符라는 用語 대신에 貫通線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斷言하기는 힘들지만 '令[31(·)]'을 'ᄉᆞ'로 읽기는 困難한 것 같다.[13] 現代譯으로서 가장 自然스러운 解釋은 '그 方便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또는 '그 方便을 보고 듣는 이를 시켜' 정도이다. 기존의 논의와 같이 '令'에 懸吐된 31(·)을 連結語尾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 연결어미가 'ᄉᆞ'로 解釋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21(·)을 對格助詞로 보기보다는 連結語尾의 機能을 하는 것으로 把握하였는데, 旣存의 論議에서 21(·)과 그 位置가 가까운 31(·)도 連結語尾의 機能을 擔當한다는 事實에 注目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旣存의 論議에서 21(·)과 31(·)과 같이 各各 別個의 點吐로 把握한 것이 실제로는 하나의 點吐일 可能性이 있다는 事實을 强調하고 싶다. 〈그림7〉은 旣存의 論議에서 31(·)으로 본 例이고, 〈그림8~10〉은 21(·)으로 본 3개의 例이다.



〈그림7: 令[31(·)]〉



〈그림8: 環[21(·)]〉



〈그림9: 餘[21(·)]〉



〈그림10: 引[21(·)]〉

13) Whitman(2009: 5-6)의 指摘과 같이 이 경우 日本 訓點으로는 'シテ'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31(·)을 'テ'로 본 小林芳規(2002, 2004, 2006)의 見解는 이 경우에도 如前히 有效하다.

〈그림 8~10〉을 보면 지금까지 21(·)으로 본 3개의 例는 點吐의 位置가 뚜렷한 데 비해서 31(·)으로 본 〈그림 7〉의 경우는 '令'字의 字形 때문인지는 몰라도 確實하게 31(·)이라고 斷定짓기에는 어디엔가 釋然찮은 점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21(·)보다는 분명히 31(·)에 가깝기는 하지만 31(·)의 다른 例가 없는 實情에서 이 例만으로 31(·)으로 確定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躊躇하지 않을 수 없다.[14] 筆者는 21(·)과 31(·)의 點吐의 位置가 서로 가깝다는 사실과 이 點吐들이 모두 連結語尾의 機能을 가지고 있고 있다는 점을 考慮하여 지금까지 두 개의 서로 다른 點吐로 보아온 21(·)과 31(·)을 하나의 點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見解의 根據는 무엇보다도 從來에 21(·)에 대한 對應 字吐인 'ㅋ'나 'ㄹ'이 解釋上 自然스럽지 않다는 점과, 21(·)으로 보아온 3개의 例와 31(·)으로 보아온 1개의 例가 실제로는 連結語尾의 機能을 하는 점에 根據를 두고 있다. 단지 이 點吐의 讀音을 무엇으로 設定할 것인가의 問題가 남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對案을 가지고 있지 않다.[15]

2.4. [12(·)]

12(·)은 小林芳規(2002)의 點圖에 提示되어 있지 않다가, 김영욱(2003)의 點圖에서 처음으로 設定되었으며, 이후 小林芳規(2004, 2006)에서 이를 受用하였다. 12(·)은 小林芳規(2004, 2006)은 'ㄴ'로 김영욱(2003/2006)은 'ㅳ'로 解釋하였다.

---

14) 실제로 김영욱(2003/2006: 59)은 '令'에 懸吐된 點吐를 21(·)으로 보았다.

15) 旣存의 論議에서 21(·) 또는 31(·)으로 판독한 예들의 現代譯을 考慮하면 이 點吐가 '-ㅳ'에 對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들의 수가 너무 작아서 쉽게 確定 지을 수는 없다.

(18) 가. 言表法者謂摩竭國是諸國之上首[33(ㅣ)]第一會[23(·)]爲九會之最初故此[12(·)]說也 〈135-136〉

나. 表法을 말하면, 摩竭國이 諸國의 上首이다. 第1會는 九會의 最初이므로 여기서 說한다.

(18가)는 唯一例이어서 한 例로 點圖를 設定하는 것이 다소 躊躇되기도 하지만 佐藤本『要決』의 點吐 自體가 많은 例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적은 例를 가진 경우라도 積極的으로 點圖에 反映할 必要가 있다. 그런데 (18가)의 例는 12(·)이 處格을 表示하는 것을 比較的 明確히 보여주는 例라고 생각된다. 단지 여기서 指摘해 둘 것은 21(·)을 處格으로 볼 때, 그리고 佐藤本『要決』이 新羅語를 反映한다고 假定할 때, 이 點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어려운 問題이다.

2.5. 13(·)

13(·)도 오직 1개의 例만 있을 뿐이다.

(19) 가. 但世界成壞[23(·),주서_]是事[13(·)]成壞故[주서_]成時非壞[주서_]壞時非 〈392-393〉

나. 다만 세계의 이루어짐과 무너짐은 곧 事의 이루어짐과 무너짐이므로 이루어질 때에는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3(·)도 (19가)의 例 하나뿐이지만, 그 예는 비교적 정확하게 屬格으로 解釋되는 것 같다.

2.6. [23(·)]

23(·)은 小林芳規(2002, 2004, 2006)과 김영욱(2003/2006)에 의해서 각각 'ㅅ'와 'ㄱ'으로 解釋된 點吐이다.

(20) 가. 此二品[묵서23(·)]明平等因果亦名本有因果[云云] 〈084-085〉

나. 이 2品은 平等因果를 밝혔다. 또한 本有因果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21) 가. 問既在摩竭說[주서]彼國衆生[23(·)]有預會不 〈132〉

나. 묻는다. 이미 摩竭國에서 說하였다면 그 나라 衆生들은 그 法會에 參與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22) 가. 言表法者謂摩竭國是諸國之上首[33(ㅣ)]第一會[23(·)][16]爲九會之最初故此[12(·)]說也 〈135-136〉

나. 表法을 말하면, 摩竭國이 諸國의 上首이다. 第1會는 九會의 最初이므로 여기서 說한다.

(23) 가. 問若爾何故菩提流支云前之五會[23(·)]是仏成道初七日說[33(ㅣ)]第六會[23(·)]後是第二七日說[33(ㅣ)]耶 〈149-151〉

나.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理由로 菩提流支가 말하기를, 앞의 다섯 會는 부처님 成道 후 처음 7日이고 第6會 이후는 2·7日이라 말했는가?[17]

---

16) 佐藤本에서 墨書로 글자의 下段에 '(·)'이 있으나 유의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17) 이 부분의 轉寫와 解釋이 김영욱(2003:61-62)에서는 "第六/151 會後時第二七日說耶"와 "제6회는 후시인 제이칠일(두번째 7일)에 설하였느냐?"로 되

(24) 가. 十地論云何故不[주서 ㄱ]初七日說[주서[ ]思惟行[주서 3자합부]因緣行[주서 3자합부 or 4자합부]故旣云思惟[23(·)]明知非[주서 ㄱ]說法[주서[ ] 〈151-153〉

나. 十地論에서 말하기를, "무슨 理由로 처음 7日間에 說하지 않았는가? 因緣行을 行하는 것을 思惟하기 때문이다. 이미 말하기를 思惟는 說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25) 가. 問若爾者何故依[주서 ㄴ,23(·)]法花[주서[ ]三七日[주서_]四分律六七日[주서_]興起行經七七日[주서_]依[주서 ㄴ,23(·)]五分律[주서[ ]八七日智度論十七日[주서_]十二遊經一年方說耶 〈175-177〉

나.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理由로 法華經에 依據하면 3·7日, 四分律에 (依據하면) 6·7日, 興起行經에 (依據하면) 7·7日, 五分律에 依據하면 8·7日, 智度論에 (依據하면) 10·7日, 十二遊經에 (依據하면) 바야흐로 1年에 說하였다고 하는가?

(26) 가. 答十地論云時處等校量顯示勝故此法勝故在於初時[주서_]及勝處說豈初二會及七八九會所說[주서_]佛果[23(·)]不如十地[주서_] 〈179-181〉

나. 答한다. 十地論에 말하기를, "時期와 處所 등을 比較하여 殊勝함을 보이기 때문이며 法이 殊勝하기 때문에, 첫 時期 및 殊勝한 處所에서 說하였다."고 하였다. 어찌 初會, 2會 및 7·8·9會에 說한 佛果는 十地만 못하겠는가?

(27) 가. 苑云世親[23(·)]且依一相故作是說[주서_]謂卅[18]心中十地爲勝六欲天中他化自在爲勝非謂一切也 〈181-183〉

어 있다.

18) '卅'은 '涅槃'을 뜻하는 '卅卅'를 잘못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慧苑이 말하기를, "世親은 또 一相에 依據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즉 '涅槃心 中에는 十地가 殊勝하고 六欲天 中에는 他化自在天이 殊勝하다'고 하여, 一切가 다 殊勝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8) 가. 問上言如因陀羅網重重[주서_]无盡時劫常說此經者[주서_]說華嚴[3자합부]會[23(·)]惣无了時[주서_]何容[주서ㄱ]有[주서ㄷ]此一部經敎[주서[ ]〈185-187〉

나. 묻는다. 위에서 말하기를, "因陀羅網이 重重한 것처럼[19] 다함 없는 時劫에 항상 이 經典을 說한다."고 하였으니, 華嚴을 설하는 會는 모두 마칠 때가 없는데, 어찌 一部 經典의 가르침이 있음을 容納하겠는가?

(29) 가. 但世界成壞[23(·),주서_]是事[13(·)]成壞故[주서_]成時非壞[주서_]壞時非〈392-393〉

나. 다만 世界의 이루어짐과 무너짐은 곧 事의 이루어짐과 무너짐이므로 이루어질 때에는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0) 가. 是等諸法[주서_]義[23(·)]別體[23(·)]同[주서_]〈400〉

나. 이들 法의 意味는 別個이지만 그 本體는 同一하다.

(20가~30가)의 23(·)은 主題 補助詞 'ㄱ'으로 읽으면 모두 自然스럽

19) "如因陀羅網重重無盡"의 飜譯을 佐藤本의 句切線을 重視하여 "如因陀羅網重重"에서 끊고 '無盡'은 '時劫'에 連結되는 것으로 把握하였다. 그러나 "如因陀羅網重重無盡"으로 보고, "因陀羅網이 거듭거듭 다함이 없는 것처럼 一時나 永劫에도 항상 이 經典을 說하였다."로 解釋할 수도 있다.

게 解釋이 된다. 특히 (23가)의 '前之五會[23(·)]'과 '第六會[23(·)]後', (30가)의 '義[23(·)]과 體[23(·)]'은 두 개의 主題語를 對照하는 主題 補助詞 'ㄱ'의 機能을 如實히 보여준다.

(31) 가. 凡[23(-)]有[33(·)]所施[12(·),15(·/)]悉[34(ㅣ)]令淸淨[42(·), 22(·)] 〈주본화엄22, 16:23-24〉

나. 凡ᄒᆞ 有ㄱ 施(ノ)ㄱ 所x ㅅㄱ 悉ᄒᆞ 淸淨 令ㅣᄒᆞ

다. 무릇 어떤 베푼 것이라면 다 淸淨하게 하고,

(25가)에 대해서 김영욱(2003/2006: 55)는 '依'에 連結되는 것은 連結語尾 혹은 連結語尾 機能을 하는 動名詞일 것으로 보았다. (25가)의 '依[주서ᄀ,23(·)]法花[주서[ ]'는 '法華經에 依하면'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에서는 (31가)와 같이 'ㅅㄱ'으로 表現되므로, '依'에 懸吐된 23(·)은 'ㅅㄱ'의 'ㄱ'을 表記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新羅時代에는 'ㄱ'이 단독으로 假定의 機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合理的이다.

(32) 가. 說經[23(·)][주서_]佛義 〈205-206〉

나. 經을 說한 부처의 의미.

(32가)는 23(·)이 主題 表示로서 機能하는 것이 아니라 動名詞로 機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華嚴文義要決』 역주팀에서는 佐藤本 『要決』에 反映된 口訣이 新羅語 口訣 또는 新羅語 口訣에 影響을 받은 初期 日本 訓點으로 볼 수 있는 좋은 例로 擧論되었다. 그런데 23(·)의 例 中에는 (33)과 같이 잘못 懸吐된 것으로 보이는 例도 있다.

(33) 가. 於中六品[23(·)]四卷[33(·)]仏名号品第七[주서[ ]四聖諦品第

八[已上二品共一卷第十二卷]光明花品第九[주서[ ]菩薩問明品第十[已上二品共一卷第十三卷]淨行品第十一賢首品第十二[已上二品共二卷第十四第十五卷] 〈051-053〉

나. 이 中에 6品 4卷이다. 佛名號品 第7, 四聖諦品 第8 [이상 2品은 모두 1卷으로 第12卷이다.] 光明覺品 第9, 菩薩問明品 第10 [이상 2品은 合하여 1卷으로 第13卷이다.] 淨行品 第11, 賢首品 第12 [이상 2品은 合하여 2卷 第14卷, 第15卷이다.]

(33가)는 23(·)이 主題 標識 'ㄱ'으로 機能하는 典型的인 例로 把握되어 '於中六品[23(·)]四卷[33(·)]'은 '이 中 6品은 4卷이다'로 解釋하였다. 그런데 이 部分은 80華嚴의 第2會의 構成을 說明하는 대목으로서 80華嚴의 9會 가운데 第2會는 品數로는 6品으로 이루어져 있고, 卷數로는 4卷(卷第12~卷第15)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事實을 說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中 6品은 4卷이다'라는 解釋은 매끄럽지 못하며,[20] 다른 會次에서 品次와 卷數를 설명한 부분과 같이 '(第2會는) 6品 4卷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2.7. [33(ㅣ)] 또는 [33(·)]

33(ㅣ)은 小林芳規(2002, 2006)과 김영욱(2003)에서 'ナリ'와 'ㅣ'로 解釋되었다.

(34) 가. 合六品一十一卷[33(ㅣ),주서] 〈043-044〉
나. 合하여 6品 11卷이다.

20) 實際로 이 部分의 앞과 뒤의 內容인 第1會와 第3會에서도 동일한 脈絡이 나오는데 이 例들에는 모두 23(·)이 懸吐되어 있지 않다.

(35) 가. 一品六卷[33(ㅣ)]十地品第卄六[六卷從第卅三[21]卷至第卅九]〈074-075〉

나. 1品 6卷이다. 十地品 第26이다. [6卷으로 第33卷에서 第39卷까지이다.]

(36) 가. 言表法者謂摩竭國是諸國之上首[33(ㅣ)]第一會[23(·)]爲九會之最初故此[12(·)]說也 〈135-136〉

나. 表法을 말하면, 摩竭國이 諸國의 上首이다. 第1會는 九會의 最初이므로 여기서 說한다.

(37) 가. 二義者又復卽此一部是无邊劫海之說[33(ㅣ)]以結通文无分齊故一說卽是一切說故 〈191-193〉

나. 둘째 意味는 또 다시, 이 한 部에 卽하는 것은 가없는 劫海의 敎說이다. 이로써 結集하여 流通시킨 글은 分齊가[차별이] 없기 때문이고, 一說은 곧 一切說이기 때문이다.

(38) 가. 又此仏身卽理卽事卽一卽多卽依卽正卽人卽法卽此卽彼卽情卽非情卽因卽果卽三身卽十身无导自在法界身雲[33(ㅣ)] 〈248-250〉

나. 또한 이 佛身은 理에 卽하고 事에 卽하며, 一에 卽하고 多에 卽하며, 依에 卽하고 正에 卽하며 人에 卽하고 法에 卽하며, 此에 卽하고 彼에 卽하며, 情에 즉하고 非情에 卽하며, 因에 卽하고 果에 卽하며, 三身에 卽하고 十身에 卽하여 無礙自在한 法界身雲이다.

(39) 가. 又揔攝一切衆生悉在[주서 ㄱ]如來一毛孔內[주서[ ]一切毛孔亦皆如來[22][33(ㅣ)] 〈255-256〉

---

21) 80華嚴에서 十地品은 卷第34에서 始作한다. 또한 卍新纂大日本續藏經에서도 '三'은 '四'로 되어 있다.

나. 또 一切 衆生을 總攝하여 모두 如來의 한 터럭 구멍 안에 있다. 一切의 터럭 구멍 또한 모두 이와 같다.

(40) 가. 何以故爲椽全獨能作舍[33(ㅣ),주서] 〈307-308〉

나. 무엇 때문인가? 서까래가 온전히 홀로 능히 집을 지을 수 있다.

(41) 가. 就此總中[주서_]開出諸色[주서_]所謂苦色[11(·)][주서_]乃至真實[11(·)]緣起之色[11(·)][주서_]如是无量差別之色[33(ㅣ)][주서]是名為別[주서_] 〈401-402〉

나. 이 總 중에 나아가서 여러 色을 열어 내니 즉 苦色이니 내지 眞實과 緣起의 色이니 이와 같은 無量한 差別의 色이다. 이를 일러 別이라 한다.

(42) 가. 於中六品[23(·)]四卷[33(·)] 〈051-052〉

나. 이 中에는 6品 4卷이다.[23]

(43) 가. 荅舍[33(·),주서][24]是 〈306〉

나. 답한다. 집이 그것이다.

---

22) 佐藤本의 '來'는 誤字이다. 다른 異本들과 관련 원문에는 '是'로 되어 있다. 佐藤本의 현토자는 '來'가 誤字인 줄 모르고 [33(ㅣ)]을 현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23) 이 부분의 轉寫와 解釋이 小林芳規(2002:28)에는 "於中六品の四卷は佛名號品第中"으로 되어 있다.

24) '舍'자 밑에 句切線이 그어져 있고 '舍'자에 33(·)이 달려 있기는 하나, '是'자를 뒤 문장에 붙여서 해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절선과 33(·)을 해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是'자에 달려야 할 것이 '舍'자에 잘못 달렸을 가능성도 있다.

(34가~41가)는 모두 33(ㅣ)이 文章의 終結 形式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42가, 43가)의 경우 點吐의 모양이 '(ㅣ)'이 아닌 '(·)'이라는 것이 다르지만 機能에는 差異가 없다. 그런데 아래의 (44가)에는 2개의 33(ㅣ)이 懸吐되어 있으나 兩者는 모두 (34가~43가)에서 본 33(ㅣ) 또는 33(·)과는 조금 다른 機能을 보여준다.

(44) 가. 問若爾何故菩提流支云前之五會[23(·)]是㉠仏成道初七日說[33(ㅣ)]第六會[23(·)]後是㉡第二七日說[33(ㅣ)]耶 〈149-151〉

나.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理由로 菩提流支가 말하기를, 앞의 다섯 會는 부처님 成道 후 처음 7일이고, 第6會 이후는 2·7일이다고 말했는가?

(44가㉠)은 '(앞의 다섯 會는) 부처님 成道 후 처음 7日이다'로 終結된 것으로 解釋하기보다는 '부처님 成道 후 처음 7日이고'와 같이 連結로 解釋하는 것이 自然스럽다. (44가㉡)은 (34가~43가)와 같이 平敍形 終結形式이 아니라 疑問形 終結形式으로 解釋될 수 있다. 물론 (44가㉡)는 '第六會後是第二七日說[33(ㅣ)]耶'는 '第6會 以後는 2·7日이다'를 內包文으로 가지는 複文으로 解釋하고, 33(ㅣ)이 平敍文 形式을 띤 內包文의 終結 形式을 反映하고 있다고 보면 (44가㉡)의 33(ㅣ)도 典型的인 平敍文 終結形式의 機能을 가진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44 ㉠)의 경우도 接續文으로 解釋하는 것이 自然스럽지만 終結形 文章으로 解釋하는 것이 不可能해 보이지는 않는다.

3. 結論

以上에서 우리는 佐藤本『要決』의 口訣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한 論議를 要約함으로써 結論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佐藤本『要決』의 口訣의 特性에 대해서 살펴보기 前에 佐藤本『要決』에 使用된 點吐가 얼마나 正確하게 懸吐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點은 佐藤本『要決』의 訓點 내지 口訣 硏究에 示唆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佐藤本『要決』의 ヲコト点 내지 點吐에 대한 論議는 이들이 精巧하게 表示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事實에서 出發해야 한다.

둘째, 11(·)은 주로 名詞句 接續의 機能을 하는 'ㅗ/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1(·)은 (11가)의 '故致[11(·)]不同[주서_]'의 경우와 같이 逆接 機能의 連結語尾로 보아야 할 例도 있다.

셋째, 21(·)은 旣存의 論議와는 달리 'ㄹ'로 解釋되는 例는 없고 解釋上 '-어/아'로 解釋되는 連結 機能을 가지고 있다.

넷째, 31(·)은 旣存의 論議와는 달리 'ㅇ'로 解釋되지 않고 現代國語의 '-어/아'와 같은 連結 機能을 가진다. 그러므로 21(·)과 31(·)은 旣存의 論議에서와 같이 다른 點吐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點吐로 볼 可能性이 있다. 兩者가 모두 連結語尾로 機能한다는 점, 現代語로는 '-어/아'로 解釋되는 共通點이 있다는 점, 31(·)으로 把握한 點吐를 21~31(·)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根據가 된다.

다섯째, 12(·)은 旣存의 論議와 같이 處格 機能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섯째, 13(·)은 旣存의 論議와 같이 屬格 機能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곱째, 23(·)은 旣存의 論議와 같이 대부분 主題를 表示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3(·)은 김영욱(2003/2006)과『華嚴文義要決』역주팀의 강독회에서 지적된 대로 動名詞形 語尾 '-은/는'의 機能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덟째, 33(ㅣ) 또는 33(·)은 旣存의 論議와 같이 終結 機能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論議한 內容을 點圖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11 •
명사구 접속 기능
또는 연결 기능
ㅗ/ㅜ 또는 ㅅ</td><td>12 •
처격 기능
ㅋ
(ㅓ 또는 ㅋㅓ)</td><td>13 •
속격 기능
ㄴ 또는 ㄹ</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23 •
주제 기능
또는 동명사 기능
ㄱ</td></tr>
<tr><td rowspan="2">21~31 또는 21 •
연결 기능
ㅋ?</td><td rowspan="2">33 ㅣ 또는 •
(평서형) 종결 기능
ㅣ</td></tr>
<tr><td></td></tr>
</table>

〈그림 11: 佐藤本『華嚴文義要決』의 點圖〉

〈그림 11〉에서 提示된 佐藤本『華嚴文義要決』은 不完全한 點圖이다. 新羅語의 文法 體系를 正確히 알 수 없는 處地에서 斷言하여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同時代의 吏讀 資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림11〉의 點圖에는 적어도 具格助詞 'ᄡᅳ', 連結語尾 'ᄀᆞ' 등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點을 考慮하면 우리는 佐藤本『華嚴文義要決』에 反映된 口訣은 그것이 韓國의 口訣이든 日本의 訓點이든 不完全한 體系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權仁瀚(인쇄중), 「『華嚴文義要決』 資料 調査記」, 『口訣硏究』 제23집.

金星周(2009), 『華嚴文義要決』의 國語學的 譯註와 佐藤本의 漢文 讀法 情報, 口訣學會 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集. 130-140.

金星周(인쇄중),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의 漢文 解釋 符號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제55집.

金天鶴 譯註(1998), 『화엄경문의요결문답』, 서울: 민족사.

김영욱(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硏究」, 『口訣硏究』 제10집, 47-78.

김영욱(2006),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新羅時代 點吐口訣 硏究」, 李丞宰 外(2006가)에 수록.

南豊鉉(2000), 『吏讀硏究』, 태학사.

南豊鉉(2002), 「新羅時代 口訣의 再構를 위하여」, 『口訣硏究』 제8집, 77-93.

南豊鉉(2009), 『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 물레.

朴商洙(진행중), 「華嚴經文義要決問答 飜譯」, 韓國佛敎全書 飜譯팀, 서울: 東國大 佛敎文化硏究所.

오미영 · 김성주(2007), 「日本 大東急記念文庫 所藏 『華嚴刊定記』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9집, 63-105.

李丞宰(2004), 「角筆 符點口訣의 意義와 硏究 方法」, 『口訣硏究』 제13집. 口訣學會. 289-316.

李丞宰 外(2006가),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2 -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李丞宰 外(2006나),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3 -周本 華嚴經 卷第六, 卷第五十七』, 태학사.

李丞宰 外(2009가),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4 -晉本 華嚴經 卷第二十, 周本 華嚴經 卷第二十二』, 태학사.

李丞宰 外(2009나),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5 -周本 華嚴經 卷第三十一, 卷第三十四』, 태학사.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7집, 33-56.

鄭在永(2006), 「韓國의 口訣」, 『口訣硏究』 17, 125-185.
鄭在永(인쇄중), 「『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硏究」, 『口訣硏究』 제23집.
鄭在永 外(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華嚴文義要決 譯註팀(代表者 鄭在永)(진행중), 華嚴文義要決 卷第1 譯註 講讀 資料.
山田孝雄(1939), 「華嚴文義要決・・東大寺諷誦文 解說」, 『華嚴文義要決』 複製本 解說 論文. 東京: 일성당.
小林芳規(2002), 「韓國の角筆點と日本の古訓點との關係」, 『口訣硏究』 제8집, 21-76.
小林芳規/尹幸舜 譯(2003),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 -京都 大谷大學藏 『判比量論』에서의 發見 -」, 『口訣硏究』 제10집, 5-30.
小林芳規(2003), 「八世紀の日本における角筆加點とその源流」,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 21-56.
小林芳規(2004), 『角筆文獻硏究導論 上卷 東アジア篇』, 汲古書院.
小林芳規/尹幸舜 譯(2006), 「日本 訓点의 一原流」, 『口訣硏究』 제17집 5-41.
小林芳規(2008), 「日本語訓点表記としての白点・朱点の始原」, 『汲古』 第53号. 1-11.
中田祝夫(1969/1979), 『改正新版 東大寺諷誦文稿の國語學的硏究』, 東京: 風間書房.
築島裕(1963), 『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Whitman(2009), 口訣資料と訓点資料の接点-佐藤本「華厳文義要決」のヲコト点/点吐を中心に, 100回訓点語学会研究発表会 發表要旨.

[410-8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34번지 에이스 10차 아파트 102동 1002호]
E-mail: sutra01@hanmail.net
접수일자: 2009. 05. 20
심사일자: 2009. 06. 20
게재결정: 2009. 07. 11

佐藤本『華厳文義要決』の口訣について

金星周

佐藤本『華厳文義要決』に記入されている訓点、または口訣が、日本の訓点を反映したものか、韓国の口訣を反映したものかについては、日本の訓点研究者と韓国の口訣研究者の間に、焦眉の関心事である。最近、Whitman(2009)は、この点について論議した代表的なものである。この論文は、佐藤本『華厳文義要決』に反映されている訓点乃至口訣の性格を理解するためには、全体の例文を対象にし、綿密な考察が必要であると報告し、既存の小林芳規(2002)とギムヨンウック(2003)に基づいて、それぞれのヲコト点乃至点吐を改めて検討した。

この作業で、既存の論議で提示した点図が、大部分妥当であると言えるが、一部に於いては、下記のように修整すべきいくつかの点を挙げた。第一、11(・)は、名詞句の接続の機能を持っており、'ュ'と同時に'ㅅ'とも対応する。第二、21(・)と31(・)は、既存の論議とは違い、'ㄹ'や'가'として解釈することはなく、両者は連結機能を持つ。31(・)を別に設定する根拠も弱いので、既存の点図で、二つの点吐を合わせて、21～31(・)(あるいは　21(・))で記録し、一つの点吐として見做す。

キーワード：佐藤本『華厳文義要決』、訓点、口訣、ヲコト点、点吐、11(・)、
21～31(・)、23(・)